



조선시대 마을 양동마을, 그리고 포항 겨울바다와 그곳에서 만나는 파메기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나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것과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오로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기억의 저편에 저장된 것들에게 가는 길일 뿐이라고. 경주 양동마을에 들어서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햇살 맑은 날 시골의 겨울 오전 공기는 파란 하늘을 닮았다. 숨을 깊게 들이 마실 때면 하늘까지 내 몸속으로 빨려 들어와 가슴 속 찌든 때를 다 씻어 내는 느낌이다. 이런 여행을 이 겨울에 떠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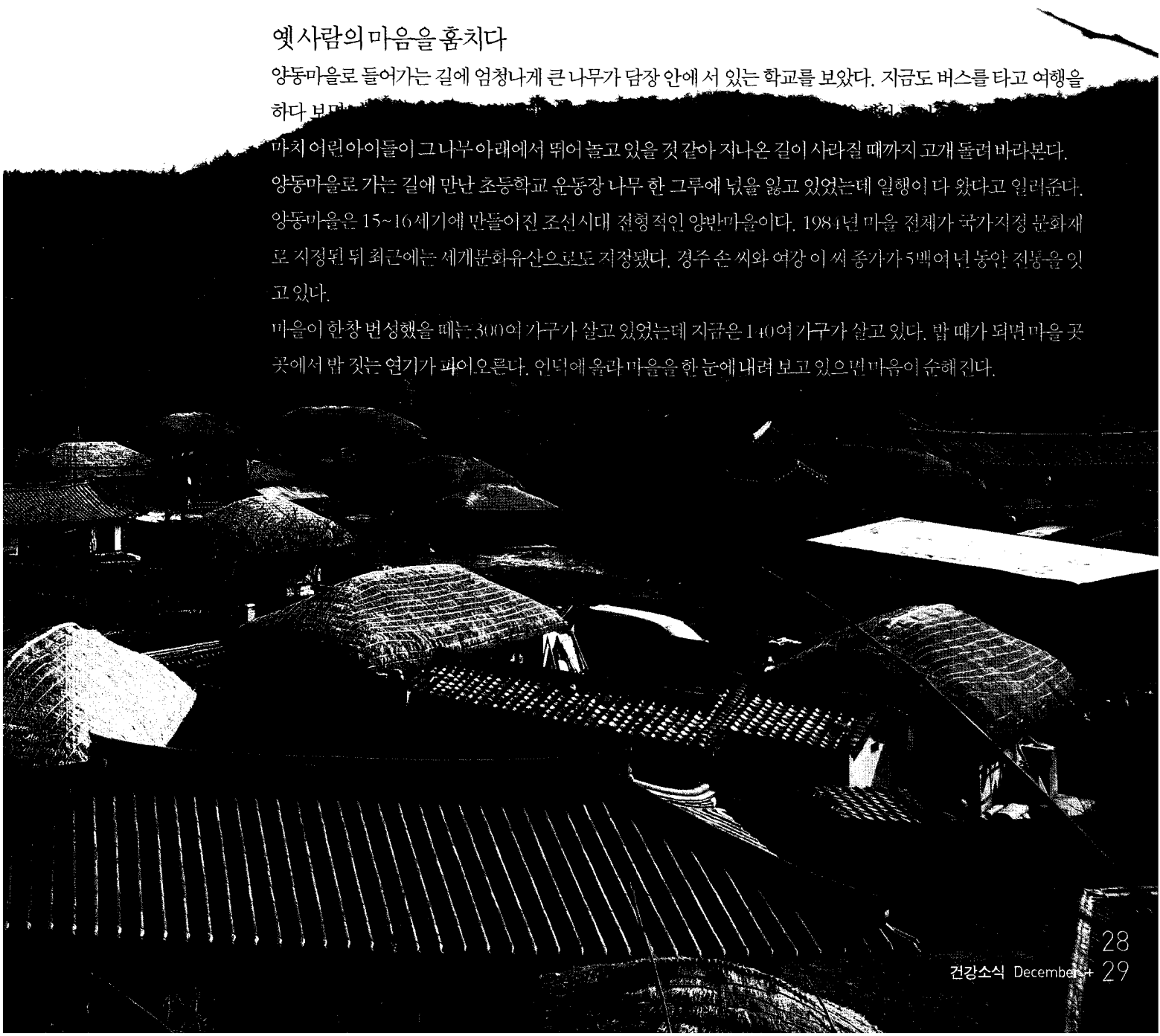
글·사진 정태동(여행 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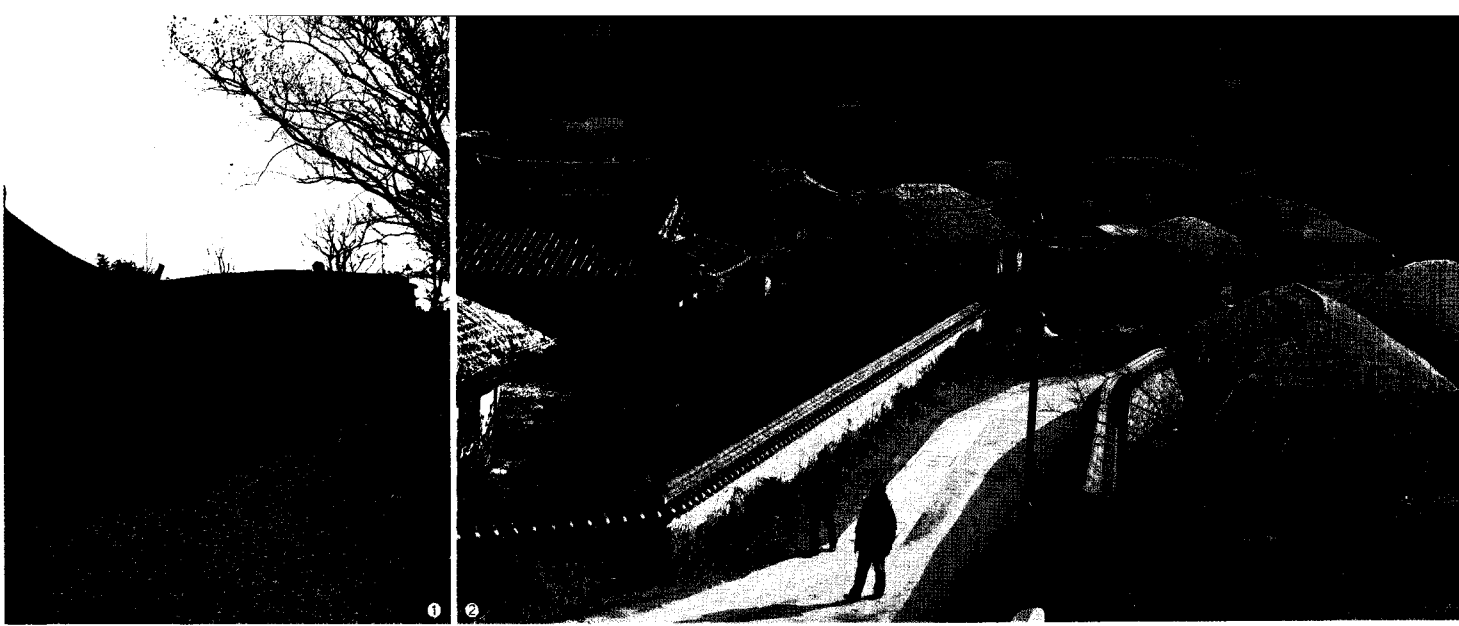
옛사람의 마음을 훑치다

양동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담장 안에서 있는 학교를 보았다. 지금도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 나무 아래에서 뛰어 놀고 있을 것 같아 지나온 길이 사라질 때까지 고개 돌려 바라본다. 양동마을로 가는 길에 만난 초등학교 운동장 나무 한 그루에 넋을 잃고 있었는데 일행이 다 왔다고 일러준다. 양동마을은 15~16세기에 만들어진 조선시대 전형적인 양반마을이다. 1984년 마을 전체가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뒤 최근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됐다. 경주 손씨와 여강 이씨 종가가 5백여 년 동안 전통을 잇고 있다.

마을이 한창 번성했을 때는 300여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140여 가구가 살고 있다. 밥 때가 되면 마을 곳곳에서 밥 짓는 연기가 파이오른다. 인턱에 올라 마을을 한 눈에 내려 보고 있으면 마음이 순해진다.





① 돌담과 흙길에 남아 있는 양동마을은 한나절 돌아보며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코스다.
 ②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간 느낌이 든다.
 ③ 메주와 옥수수를 말리는 초가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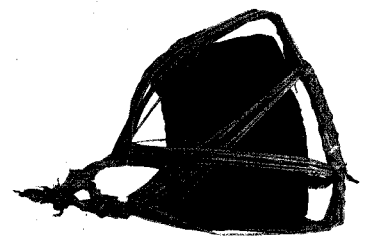
이끼 낀 기와집 앞마당 고목이 몸을 비틀어 집을 감싸안았다. 화재 이전적의 동생 농재 이언팔의 효심을 받들어 지은 심수정이다. 벼슬길에 오른 형을 대신해 농재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고 한다. 지금 남아 있는 건물은 1917년경에 지어진 것이며 양동마을 정자중 가장 규모가 크다. 양동마을에는 이런 이름 있는 정자나 집 말고도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도 백여 채가 넘는다. 모두 초가와 기와를 얹은 한옥이다.

한옥 마을은 위에서 내려 봐야 제 멋을 알 수 있다. 집들이 골짜기 어느 구석에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는지, 웅기종기 모인 한옥이 어우러진 모습을 위에서 한 눈에 내려다보아야만 '마을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 다행히도 양동마을 언덕길을 오르내리다 보면 그런 풍경을 볼 수 있다.

칠포 해수욕장과 항구의 작은 마을

양동마을에서 나와 7번 국도를 타고 포항 쪽으로 달린다. 포항 시내에서 7번 국도를 버리고 북부 해수욕장과 환호해맞이공원 가는 길을 따른다. 그 길을 따라 바다와 가장 가까운 길을 따라 북쪽으로 달리다보면 칠포해수욕장을 만난다. 거친 파도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백사장 한 가운데 자리한 예쁜 화장실을 보며 저마다 재미있는 상상에 빠질 듯하다.

일행은 어디로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다. 바다에 젖은 모래가 있는 곳까지 걸었다. 고운 모래에 발이 빠졌다. 그렇게 나무처럼 바닷가에 서서 부채처럼 휘어진 저 끝 바닷가 마을을 바라보았다. 별거벗은 산 아래 마을이 있고 마을 앞이 바다다. 간혹 보이는 파란 지붕은 바닷가 마을의 고유한 풍경이다. 마을 안이 궁금해졌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한다. 갯바위에 올라 바다를 향해 낚싯대를 드리운 사람, 바다 언덕 기슭을 돌아가는 모퉁이를 천천히 걸어 나오는 여자, 낚은 그물을 차고 앉아 분주히 손을 놀리는 이쭤마, 나는 그 가운데 서서 고개를 돌려 풍경속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① 칠포 바다 건너 칠포항구와 바닷가 마을이 보인다.
 ② 백사장 한 가운데 외로이 서 있는 화장실 외로이 서 있어서 그런지 더욱 색다른 풍경이다.
 ③ 과메기를 찬 겨울바람에 말리고 있는 풍경



잠시 시간이 멈춰서고 진공의 적막감이 마을을 그대로 정지시켜 놓은 듯 했다. '쟁' 한 햇빛이 그 모든 정지된 시간과 공간을 흔들어 깨울 때까지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 여행자로써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은 듯 했다.

바다와 함께 한 오랜 세월 동안 바닷가 마을도 연륜이 생겨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가 보다. 마음이 차분해지면서도 풍요로운 행복에 마음이 부풀어 오른다.

바다바람과 겨울햇빛의 맛, 과메기

겨울 포항은 과메기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포항 죽도시장에 과메기 거리가 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그 거리는 과메기로 넘쳐난다. 상점 앞길 한쪽에 새끼로 과메기를 엮어 말리는 풍경이 보인다. 과메기를 사려는 사람들도 그 거리에 넘쳐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과메기 식당'이 없다. 포항 시내도 그렇고 과메기의 본고장이라고 알려진 구룡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알고 보니 과메기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횡집에서도, 대게 파는 집에서도, 고기 구워먹는 집에서도 파는 등 과메기철만 되면 포항인근 웬만한 식당에서는 과메기를 다 판다고.

죽도시장에 있는 건어물가게 사장님의 소개로 과메기 공장을 둘러볼 수 있었다. 공장은 구룡포 바닷가에 있었고 바닷바람 세차게 몰아치는 공장 앞마당에서 과메기를 말리고 있었다.

과메기 배를 따고 내장을 정리하고 씻는 것까지 기계가 다 알아서 한다. 사람들은 과메기를 다듬는 기계 입구에서 칸마다 과메기를 정돈해서 놓아두면 된다. 그렇게 손질된 과메기를 바람과 햇볕이 잘 드는 바닷가에서 3일 동안 말린다. 온도가 올라가거나 바람이 없으면 과메기의 제 맛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과메기는 한 겨울에 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말려야 제 맛이 나는 것이다.

제대로 된 과메기는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하며, 기름기가 흐르는 가운데 살은 검붉은 색을 띤다. 요즘은 보통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과메기를 만들고 먹는데 1년 중 가장 추운 12월 말부터 2월 초 사이에 먹는 맛이 최고란다. 6

Tip

양동마을 여행정보

자가용으로 가는 길 : 포항에서 영천 방향으로 가는 국도를 따르면 강동면을 지나 오른쪽 갈림길로 접어들어 조금만 가면 오른쪽으로 양동마을 이정표가 보인다. 영천에서 포항 방향 국도를 따르다보면 옥산서원을 지나 좌측으로 양동마을 이정표가 나온다.

대중교통으로 가는 길 : 포주역에서 양동마을 입구를 지나가는 시내버스를 타고(40분 정도 걸림), 양동마을 입구에서 내려 1km 정도 걸어가면 된다.

먹을거리 : 한옥 사랑방에 앉아서 먹는 고향의 향기를 닮은 칼국수



숙박 : 마을 내 한옥 민박집이 있다.

주변 여행지 _ 오어사

원효스님과 자장스님의 설화가 내려오는 절이다. 오어지라는 호수에 둘러싸여 있어 사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든다.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이 아름답다.